

러시아와 한반도: 2000년대

1. 푸틴시대 변화하는 전략

집권1기인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러시아 지도부의 외교전략 개념은 “실용주의적 지정학적 현실주의(pragmatic geo-economic realism)”가 지배했다. 이 외교정책 사고방식은, 국제관계는 경쟁으로 특징 지워진다는 이전시기의 가정을 공유했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 달리 러시아지도부는 영향권을 위한 지정학적 경쟁으로써 뿐 아니라 시장을 위한 싸움으로써 국제관계를 보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위협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러시아 사고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러시아외교는 국가의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당시 외교정책사고는 협력의 잠재적 이익에 대해 더 낙관적이었다. 이 사고는 더 실용주의적으로 되고, 러시아의 대국지위는 어느 범위까지 책임 있는 외교정책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런 전환은 독단적인 입지 방어보다 오히려 국제적 현실을 받아드려야만 하는 것과 팀 플레이어(player)로써 스스로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집권 2기 외교전략 개념

집권 2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러시아 지도부의 외교전략에 대한 개념은 “문화적 지정학적 현실주의(cultural geostrategic realism)”이다. 이 외교정책 사고는 문화적 지정학적 현실주의를 방영하는 더 자의식이 강하고 야심적으로 되었다. 이전 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외교정책사고가 여전히 국제체제를 경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쟁은 지정학과 경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치체계(value system)”도 포함되었다.

더구나 러시아지도부는 발전을 실현하기위해 러시아의 능력들의 훨씬 더 낙관적인 평가를 가졌다. 그래서 러시아의 정체성을 독특한 것으로 인식했다. 러시아의 실용주의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지도부는 더 독립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강조했다.

집권 2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러시아 지도부의 외교전략에 대한 개념은 “문화적 지정학적 현실주의(cultural geostrategic realism)”이다. 이 외교정책 사고는 문화적 지정학적 현실주의를 방영하는 더 자의식이 강하고 야심적으로 되었다. 이전 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외교정책사고가 여전히 국제체제를 경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쟁은 지정학과 경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치체계(value system)”도 포함되었다.

더구나 러시아지도부는 발전을 실현하기위해 러시아의 능력들의 훨씬 더 낙관적인 평가를 가졌다. 그래서 러시아의 정체성을 독특한 것으로 인식했다. 러시아의 실용주의를 유지하면서 러시아지도부는 더 독립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강조했다.

3. 푸틴 집권시기의 한반도 정책

남북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이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아갔다. 푸틴시대 대한반도 정책은 5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한반도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방식은 자국의 이익 뿐 아니라 남북한의 이익도 고려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과 상호 우호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

셋째,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외교적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 화해의 과정은 외세의 영향 없이 남북한 국민들의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화해에도 도움이 되는 남북한이 참여하는 경제프로젝트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인접국가인 러시아도 상호이익의 측면에서 참여한다.

4.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균형외교 정책

2000년 2월 양국간 새로운 “러-북 우호 선린협력조약”에 서명했고, 2000년 7월 소련시대를 포함해 러시아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푸틴은 평양을 방문하여 러-북 우호협력관계를 과시했다.

2001년 2월 푸틴대통령이 한국을 21세기 한-러 양국간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여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푸틴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외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있다”면서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없이는 사회 경제의 발전도 없으면, 동북아 정치발전의 제고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5. 한국 국회에서 푸틴 연설

“러시아는 남북관계를 지원하고 잠재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대 한반도 5대 원

책을 제시했다.

1) 남북한 평화과정의 당사자 합의 우선

2) 남북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3) 대량파괴무기의 폐기 및 미사일 비확산

4) 국제법을 통한 한반도 안정보장

5)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등 한-러 경제협력이다.

6.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와 러시아

전시작전권 환수가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약화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아나톨리 츠가니크 모스크바 정치군사연구소장은 "미국이 쥐고 있던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환수되면 러시아로서는 장애가 하나 없어지는 셈"이라며 "북한과 이라크라는 동서 양쪽외교에서 좀 더 유리한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영향력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환수로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약화가 중국의 영향력 증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

아나톨리 소장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러시아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바실리 미헤예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중국 아시아센터 소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북한에 개입할 것이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지금은 별 의미가 없지만 전시에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2006년 9월 16일)

7. 양국 무역관계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조선, 컴퓨터, 가전, 통신기계, 가전 등)인 반면에 러시아로부터 주요 수입품은 (철강, 원목, 석탄, 수산물 등)으로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FTA 체결 시 한국의 제조업 제품수출과 서비스 부문(통신, 유통, 교통, 금융, 물류 등)에서 교역과 투자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같이 러시아와 한국은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감대를 갖고 한-러관계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다양한 형태로 정치 안보 경제협력의 성과로 가시화되었다. 이처럼 푸틴집권 2기 한-러관계는 본격적인 관계발전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와 한반도: 메드베데프시대

1. 메드베데프시대 한반도 정책

2008년 5월 7일 집권한 메드베데프시대는 푸틴의 집권2기 한반도 외교정책을 변화 없이 유지해 오고 있다.

2008년 여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 의해 확정된 러시아 대외 정책의 개념에서, 동북아에서는 긴장감과 갈등의 원천이 존재하며, 대량 살상무기의 확대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북아 정책은 이 지역에서의 견고한 대외 상황의 분위기 조성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의 경제적 성장의 필요성과 관련지어 동아시아국가들과 관계 발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 할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2. 대외정책 문서

이 문서의 한반도에 관해 러시아에게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의 모색에 러시아의 활발한 참여, 남북한간의 건설적 관계유지, 양국간의 대화 장려, 동북아의 안보 강화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3. 극동지역 경제발전과 연계

러시아의 메드베데프는 자신의 재임기간동안 추구할 국가를 위한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추진력으로서 한반도를 보고 있다. 이것은 왜 러시아가 6자회담의 체제에서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다른 좋은 이유이다.

양국 에너지 협력 강화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 전략적 중요성을 두고 있다.

4. 경제적인 측면 강조

메드베데프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방대한 시베리아 극동지역을 개발시키고, 아-태지역으로 가스 및 오일 파이프노선을 설치하는 것.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철도연결을 설치하는 장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동부지역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 산업들 건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수송과 기반시설 확대하기 위해 자본과 해외기업의 참여를 이런 부문들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이미 고르바초프시대부터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추구하고 있다.

5. 경제협력

러시아는 한국과 무역 및 투자관계의 협력 발전에 특히 관심이 있다. 2000년(28억5천만달러)부터 2007년(150억달러)사이 무역 규모가 거의 7배나 증가하여, 양국 무역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추세로 간다면, 양국교역량은 몇 년 내에 300-400억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투자측면에서도 대형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합작투자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 석유화학, 자동차현지공장 등이 있고, 주로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활기를 띠고 있는 제조업과 유통, 가전제품 등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6.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 방문

2008년 9월 28-30일 이명박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러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명박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를 만나 에너지분야의 협력, 서캅차카대륙붕의 공동개발, 극동과 시베리아지역 발전에 한국기업인들의 참여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또한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서로 협력을 다져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러시아 가입지원, 2012년 APEC 포럼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주최를 위한 러시아 계획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표시했다.

7. 3대 신 실크로드(철도, 에너지, 농업)구상

‘한러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우리의 경제성장 노하우를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들은 러시아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러시아의 전략에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동아시아지역의 진정한 국가의 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동북아지역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올 때 이 계획들도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8. 향후 양국관계

한국정부도 러시아와 안정된 관계와 협력이 정치적 화해없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대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중러의

이익들에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비록 한-미 관계 만큼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한-러 관계는 지역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세계적 중요성의 긍정적인 선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국제문제에서 단극체제가 유지될 수 없을 뿐 더러 발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더 입증한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9.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2004년 양국관계는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에서 2008년 이명박정부 들어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됨.

양국의 보다 격상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양국간 쌍무적인 관계를 넘어 세계적 범위에 걸친 모든 분야의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단계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양국은 중요한 국제문제에 대해 함께 대처하면서 인식을 같이해 가며 협조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이익을 호혜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

10.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몇 가지 방향으로 발전

첫째, 양국 정부와 의회지도자들 사이의 인적교류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양국 정상회담, 총리 및 장관회담 등의 고위급회담을 제도화를 통해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보다 깊고 넓게 협의하고 협조함으로써 양국의 정치적 신뢰관계를 보다 깊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을 대신해 러시아의 아시아정책에 대한 연방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전권대표들 및 지역 주지사들과 정기적인 교류(예, 한-러 지사회의)도 중앙 및 지방정부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 한반도 안보 문제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그에 못지않은 실용주의 균형외교 원칙하에 러시아와의 외교적 협력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이 한반도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이후 동북아 다자안보구축을 겨냥한 주변국들의 외교경쟁에서 균형 있는 실용주의적인 외교 전략을 강구해야한다. 한반도의 역사적 교훈을 보았을 때, 주변 강대국간 힘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지 않았고, 한반도 재통일도 어렵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 IV장에서 제시한 통일과정에서 중간단계로 추진해야 할 방안들을 시간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과 주변국과 양자 또는 다자협력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양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무협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2005년 양국이 채택한 ‘행동계획’에 제시된 제반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 특히 2008년 2월 러시아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0플랜’ 경제계획에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산

업구조 다변화와 에너지 공급, 수송 기반시설 확충을 강조하고 있고, 2007년 ‘극동 자바이칼개발계획’에 2013년까지 공항, 항만, 도로 등 인프라확충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첨단기술과 테크놀로지 부문과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사업을 중심으로 양국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에너지 분야 협력에 있어 한국이 취할 전략으로 미일중 주변 강대국에 비해 자본력이 크게 떨어지는 한국은 대규모 자원개발프로젝트 보다 중소형 광구를 겨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스프롬, 로스네프티 등 러시아 에너지 관련 국영기업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자원 확보 대가로 러시아에 정유공장, 석유수출터미널 등의 건설이나 개보수를 제안할 수 있다.

여섯째, 중앙 및 지방 정부차원에서 양국간 문화, 예술, 스포츠, 청소년교류 및 교육 학술협력 등 인적 교류가 확대되어 친선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교류는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상호방문 등을 정례화 하여 실질적인 협력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

11. 러시아의 한반도 보는 관점

대체로 과거나 현재나 러시아는 한반도를 동북아 강국(미중일)과 러시아의 관계의 상황속에서 보고 있다. 미래에도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의 이 모습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동북아 외교정책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증대에 실패한 것은 바로 러시아가 이 지역의 강국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주요 강국들과의 대등한 동반자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2. 러시아 지역 강국과 한반도

지역 강국이 되기 위해서 러시아는 극동과 시베리아지역의 사회, 경제, 기술적 발전을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결국 자본, 기술,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지역 국가들과 협력발전이 연계되어야만 성취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러시아는 아-태지역 통합 메커니즘에 적극적 참여, 지역 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 강화, 그리고 지역 안정을 위해 안보문제 평화적으로 해결 등에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